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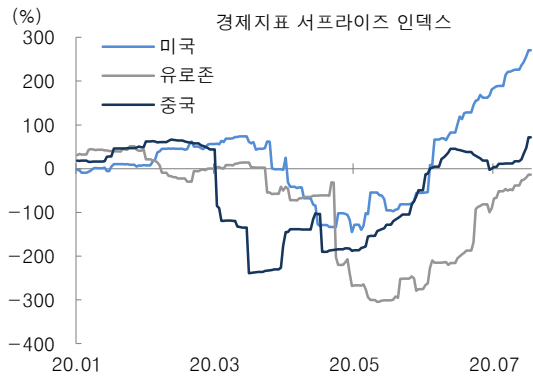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방향성이 아닌 속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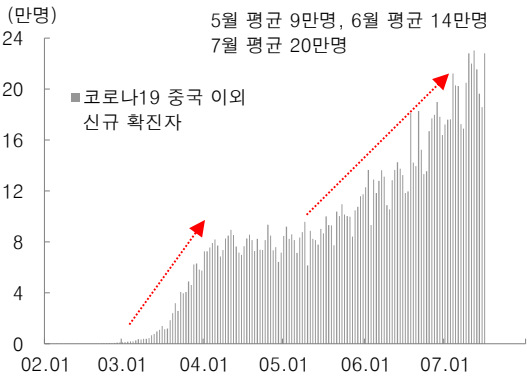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6월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각각 5.4%, 7.5%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4.3%, 5%)를 넘어섰다. 중국 2분기 GDP 성장률도 전년대비 3.2% 성장하며 시장 예상인 2.5%를 상회했다.
- 글로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 후반 하락반전했다. 미중 갈등고조, 중국 소비지표의 예상치 하회, 추가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 약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간 기대로 인한 서프라이즈 모멘텀 둔화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코로나19 확진자수 폭증세는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는 변수이다. 미국 Fed(연준)는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 활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진단했고, 코로나19의 항배를 주목하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7월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재차 급증하며 글로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300만명을 넘어섰다. 7월 12일부터 5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2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은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7월 들어 6만명대로 레벨업되었다. 남부 해안가 중심으로 코로나19 폭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 Google Mobility Index와 델러스 연에서 발표하는 미국 이동/활동성 지수(MEI)가 7월초 이후 회복세가 꺾였다. 미국 MEI는 6월 셋째주 -48%에서 7월 둘째주 -58%로 낮아졌다. 미국 Google Mobility Index(소매/여가활동)는 7월 2일 -4%에서 7월 12일 -17%로 하락했다. 6월말 이후 재개된 코로나19 확진자수 폭증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125만건)를 상회한 130만건 기록한 것 또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수 폭증, 경제활동 지수들의 하락반전 영향으로 본다.
-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이 유효한 가운데 중장기 추세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한국, 유럽은 물론, 미국 뉴욕, 뉴저지 등 상당수 지역에서 코로나19 진정세가 이어지고, 경제활동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중국의 2/4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 주요국들도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통화/재정/금융 정책에 힘입어 경기회복세는 이어갈 전망이다.
- 다만, 단기적으로는 과열/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불안심리를 자극할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높아진 눈높이로 인해 서프라이즈 모멘텀에 대한 금융시장 민감도는 낮아지고,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올 경우 투자자들의 실망감,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림 1. 글로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모멘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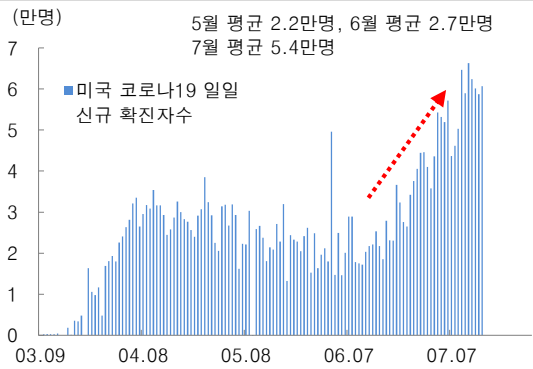
자료: Ci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코로나 19 글로벌 확산 속도 빨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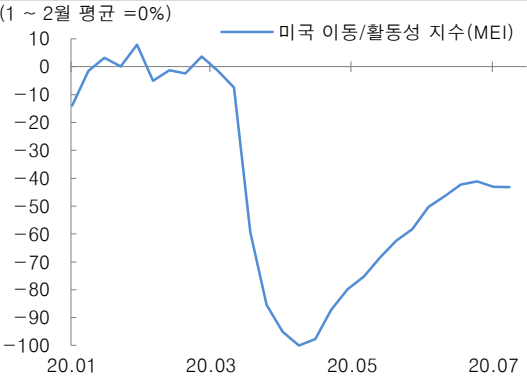
자료: WHO,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코로나 19 확진자수 두배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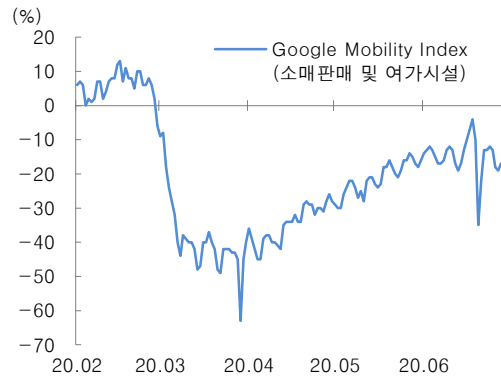
자료: WHO,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국 경제활동 재개에 제동이 걸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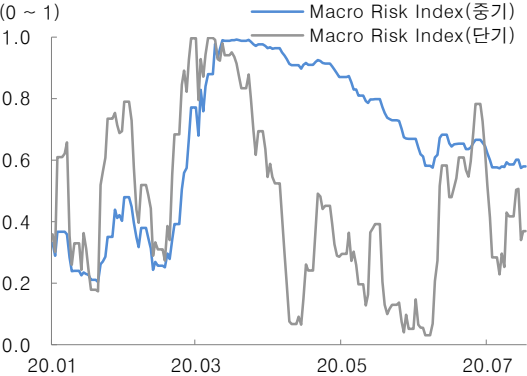
자료: 델러스 연은,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미국 소비 회복이 더뎌질 수 있어...



자료: Googl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단기 리스크 확대를 경계해야 할 시점



자료: Ci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